



비상사태 발생후 대처방법

비상사태 발생 시와 발생 후에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비상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TV, 라디오, 또는 인터넷을 통해 그에 관한 정보를 가급적 많이 입수한다.

그리고 비상사태의 유형에 따라, 집안에 그대로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방법은 담당 공무원들이 말해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제한된 정보 때문에,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해 발생 후:

며칠간은 계속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비상경보시스템을 청취하며 지시사항을 따른다.

부득이 며칠간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 먼저, 냉장고에 보관중인 식품 가운데 제일 상하기 쉬운 것부터 먹는다.
- 그 다음, 냉동고에 들어 있는 것을 먹는다.
- 건조식품이나 캔 제품은 맨 나중에 먹는다.
- 끝으로 비상용 키트에 들어 있는 비상 식량을 먹는다. 단, 이것은 3 일치 식량임을 명심한다.

비상 식량이 바닥난 경우:

- 물을 필요한 양만큼 계속 섭취한다.
- 침착하게 서늘한 곳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필요한 물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식수가 바닥나서 더 구해야 하는 경우:

- 재해구호기관 등에서 보낸 병입수 배급소를 찾아간다.
- 해당 지역 공중보건 당국으로부터 수(水) 처리방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비상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을 경우:

- 매일 한끼 정도는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한다.

비상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관련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침착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시, 군, 주 정부 공무원들은 각종 비상계획을 개발해왔다. 일단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지시와 권고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최신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아울러, 침착한 대응이야말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ady in 3(“레디 인 쓰리” - 3 단계 대비)은 미주리주(州)의 비상대책프로그램이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미주리주 보건 및 고령자 복지부(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and Senior Services)에서 후원하고 있다. **Ready in 3**의 목적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토네이도부터 테러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참고로, health.mo.gov/emergencies/readysin3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